

2022 SPRING VOL. 13

POSTING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소식지



CONTENTS

03

단장 인사말

2022년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04

보건사업 Brief

공공의료발전을 위한 인천광역시 공공의대 유치의 필요성

06

Focus on 인천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추진 동향 및 지자체의 움직임

10

공공보건의료 Alive

이호철 대외협력부총장(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추진단 단장)

12

지원단 주요일정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발행일 2022. 03. 발행호 Vol.13 발행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편집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발행처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 <http://www.ippi.or.kr> 전화 032-580-6391

디자인·제작 DESIGN 편집 ※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소식지 <POSTING>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22년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매년 초, 우리는 의례적으로 조만간 다가올 미래를 전망해보고 나름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항상 “중요한 한 해”가 되리라 전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은 공공보건의료, 특히 인천시의 공공보건의료 분야로서는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2년 동안 우리 삶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기존 이슈들 모두를 블랙홀처럼 삼켜버린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이 상당부분 해소 또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질서와 규범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별 이견이 없지만 아직은 백가쟁명식의 처방만 있을 뿐입니다. 또 다시 찾아올 것이 분명한 신종감염병 유행 대비도 철저해야 하겠지만, 필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공중보건의료체계를 재정비하는 것도 시급할 것입니다.

또한 2022년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6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고, 각 정당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기에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하더라도 공공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척박한 우리 인천시의 경우 그간 세기되어 온 여러 현안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가 되거나 결실을 맺을 것 같습니다. 고무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시작되었고, 진료권별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선도하게 될 책임의료기관들의 활동도 본 궤도에 오를 듯 합니다. 또한 인천시 공공보건의료 기획의 정점 역할을 하게 될 공공보건의료위원회도 구성되었으며,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담할 조직(팀)이 인천시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렇듯 공공보건의료 정책환경과 여건 등이 크게 바뀌고 있는 2022년도에는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소식지’를 통해 공유해야 할 정보와 성과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이 소식지를 매분기 발행해야 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구성원들은 유용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는 작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례적이지만 특별한 다짐인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이훈재



공공의료발전을 위한 인천광역시 공공의대 유치의 필요성

글 이용갑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2020년 1월부터 확산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전 세계 각국의 극복과정에서 공공의료기관에서 환자 우선 치료 및 이에 따른 공공의료기관의 과부하와 보

건의료 인력의 부족 현상의 심화 등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인천시에서도 인천의료원을 국가 지정 코로나19 입원치료 병상인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여 인천지역 코로나19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뒤이어 민간의료기관들이 감염병 전담병원 및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환자 치료에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공공의료 확대를 둘러싼 지역사회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일반 환자 대상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이 인천의료원 하나뿐이어서 지난 2010년부터 제2인천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노력,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없어서 지역에서 의료인력 양성 규모가 부족하고 공공의료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의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유치 문제, 국제도시인 송도, 청라, 영종에서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학병원 유치 문제 등이 한꺼번에 중첩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기준 인천시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규모는 7대 특·광역시 중 여섯 번째인 2.5명이며,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비롯한 강화군·옹진군 등 168개 도서 지역의 의료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과 확충이 필수적인 인천시에 국립 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2021년 5월 인천대학교에서 시작한 이 요구는 2021년 9월 국회에서 인천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이를 계기로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인천 시의회, 연수구, 서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의회에서는 인천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이 의결된 상태이다. 결의안의 기본 내용은 국립대학교인 인천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인천시의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이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인 의과대학이 아닌 서민층 우수한 학생도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등록금,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인천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는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천대학교는 2021년 12월에는 인천시교육청, 2022년 1월에는 연수구와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실,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난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인천대학교는 시립대학교에서 국립대학교로의 전환을 앞두고 2009년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였고, 2016년에는 ‘바이오 중심 대학’으로 성장하고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2018년에는 치·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였지만, 매번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전 세계적 신종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인력 양성 확대를 위한 국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에 호응하고자 인천대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공공의과대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과대학교 설립 추진은 인천대학교뿐 아니라 인천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도 환영할 일이고, 필요 한 일이며,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국립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부속병원이 설립되어 운영된다면, 일반 환자 대상 공공의료기관 부족한 인천시에 공공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하나 더 생기게 되고, 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권역별(광역지자체별) 국립대 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로 연계되는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의사인력 양성에 는 기본적으로 최소 10년 정도가 필요한 것을 고려 한다면, 인천대학교 공공의과대학이 의사인력을 양성하여 사회로 배출하는 10년 후에는 인천시 의사인력 수급이 지금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시기가 되면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인천의료원, 제2인천의료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등 현재 시점에서 논의되는 인천시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될 것이고, 바이오헬스산업 전문도시로서 인천시의 보건의료 연구인력 양성도 원활해질 수 있다. 국립인천대학교의 자체 부속병원이 공공의과대학과 함께 할 경우에만 이와 같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천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인천시 지역사회 노력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현재 인천의 유일한 일반 환자 대상 종합병원 급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을 인천대학교 공공의과대학의 교육·실습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자는 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국립인천대학교와 인천시가 함께 필요한 것은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전달체계 기능을 수행하는 자체 국립대학교 부속병원과 함께 일반 환자 대상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의 지속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끼어 바느질을 할 수는 없다는 속담이 있다. 또한, 교육의 기본원리인 백년지대계를 상기한다면,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립도 자체 (상급)종합병원급 국립대병원과 함께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인천 지역의 의료인력양성과 함께 공공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것이다.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추진 동향 및 지자체의 움직임



배경

2020년 7월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중증 및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의사 확보의 어려움과 역학조사,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부족, 그리고 임상의사 외 향후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이끌 의과학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당시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역 내 중증 및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의사 수는 최소 3,000명으로 추계됐고,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누어 추계한 결과 3,258명의 의사가 중증 환자 치료 기능 수행에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를 양성하는 국내 의대의 경우 1980년대 6개 의대(정원 800명)으로 시작으로 이후 1980년대 후반 28개 의대(정원 2,779명)으로 증가하였고, 1990년대에는 정원 40명 규모 신설 의대 9개가 생겨나면서 전국에 41개(3,253명)까지 늘어났으나 2000년대에 의약분업에 따른 의정 협의 과정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하기로 하면서 2006년까지 3,058명으로 감원되었다. 이후 2012년 의사인력 수급 추계 TF를 운영하여 의대 입학 정원을 검토했으나,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과 의견 차이로 추진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정원이 동결된 상황이다.

<표 1> 지역별 의대 입학정원 현황('20년)

서울	8	826	서울대(135), 경희대(110), 고려대(106), 연세대(110), 중앙대(86), 이화여대(76), 한양대(110), 가톨릭대(93)	강원	4	267	강원대(49), 한림대(76), 관동대(49), 연세대 원주(93)
부산	4	343	부산대(125), 고신대(76), 인제대(93), 동아대(49)	충북	2	89	충북대(49), 건국대충주(40)
대구	4	302	경북대(110), 계명대(76), 영남대(76), 대구가톨릭대(40)	충남	3	182	단국대천안(40), 순천향대(93), 건양대(49)
인천	2	89	인하대(49), 가천대(40)	전북	2	235	전북대(144), 원광대(91)
광주	2	250	전남대(125), 조선대(125)	전남	-	-	-
대전	2	150	충남대(110), 을지의대(40)	경북	1	49	동국대경주(49)
울산	1	40	울산대(40)	경남	1	76	경상대(76)
경기	3	120	아주대(40), CHA의과대(40), 성균관대(40)	제주	1	40	제주대(40)

*'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른 49명 정원은 전북대(34명), 원광대(15명)에 일시적으로 배정

* 출처: 보건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보도자료

정부 동향



정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여 2024년 4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개교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학생 선발 방법(일정 비율 지역 배분 선발), 교육병원(기존 공공병원 활용), 학비 지원(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10년간 국비 지원), 의무 복무(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시도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 등의 설립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20년) 8월까지 법률 제정 → ('20년 하반기)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21년~) 부지확보 및 건축설계 → ('22~'23년) 학교 건축 및 개교 준비 → ('24년 3월) 개교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2020년 6월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발로 해당 법안이 제정되지 않았다. 2020년 9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문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추진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 한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지금까지 공공의대 설립은 답보상태에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합의에 따라 관련 근거법률을 마련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운영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조건을 달아 설계비 명목의 공공의대 설립 예산을 전년보다 인상(955 → 1,185백만 원)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 예산 불용 이유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2022년 예산안에 공공의료 설계비(약 4억 원)를 편성하였다.

〈표 2〉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의 진행 현황('19~'21년)

구분	편성액(백만원)	집행액(백만원)	불용액(백만원)
2019	300	0	300(전액 불용)
2020	955	0	955(전액 불용)
2021	1,185	0	-

* 주 : 2021년은 8월말 기준 * 출처 :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타 지자체의 움직임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여럿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해당 지역에 공공의대 유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① 전라남도



[그림 1] 전라남도 공공의대 유치 활동

전라남도는 지역 내 일반대학교와 전문대학교의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공공의대 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20년 8월 순천대학교와 한려대학교, 전문대인 광양보건대학은 의료 관련 분야 협력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 및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전라남도가 의뢰한 전남국립의대와 부속병원 설립 연구 용역으로 목포시를 방문하여 의대 설립과 지역 의사인력 양성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역 의견을 청취하였다.

②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가 1.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내세우면서 2020년에 안동대학교과 포스텍(포항공대)을 중심으로 의대 유치 운동을 시작하였다. 안동대학교는 국회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포스텍(포항공대)은 '포항 의대 유치 추진위원회'을 출범시켰다.



[그림 2] 경상북도 (공공)의대 유치 활동

③ 경기도

경기도 북부지역인 포천시에 4년제 사립대인 대진대학교가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의 낙후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2021년 5월 대진대학교 의대 유치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였다.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의 인구(350만 명)는 전국 시·도 중 서울, 경기 남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는(1.6명) 전국 평균(2.4명)



[그림 3] 경기도 공공의대 유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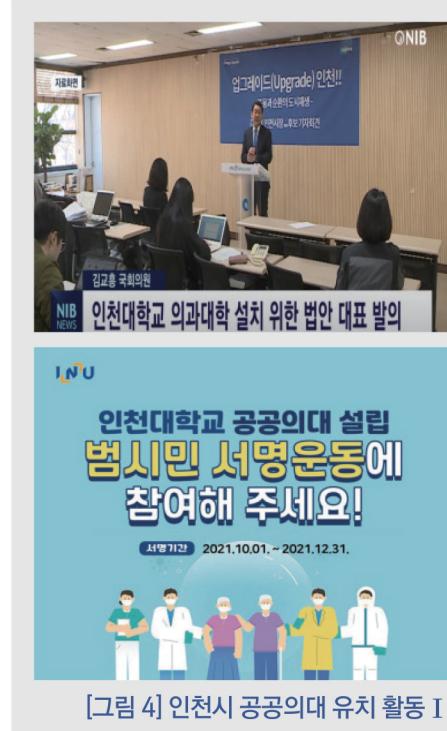
에 낮을 뿐 아니라 지역에 의대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진대학교는 TF를 중심으로 지역정치권과 협의회와 토론회 등을 공동 개최해 의대유치 방안을 모색하였고, SNS와 유튜브를 통해 의대 유치 당위성 홍보와 시민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움직임

인천시는 국립대학교가 있는 7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공의료 핵심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그간(‘08년, ’17~18년) 국립대병원 유치를 도모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추진 움직임에 발맞춰 2021년 9월부터 인천대학교를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공공의대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인천시 지역구인 국회위원 12명이 합심하여 김교홍 국회위원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에는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인천시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 등에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 움직임과 함께 인천대학교는 대외협력부총장을 단장으로 국회의원, 교수, 학생대표, 시민단체, 유관기관 및 언론사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여 범시민 서명운동 등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인천시 군·구의회와 교육청도 인천대 공공의대 유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2021년 10월 서구와 연수구 의회, 11월 남동구의회에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였고, 12월에는 인천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22년 1월에는 계양구의회 청사에서 개최된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인천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이 방문하여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설명하고 각 군·구의회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림 4] 인천시 공공의대 유치 활동 I



[그림 5] 인천시 공공의대 유치 활동 II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추진단 단장**

이호철 대외협력부총장

인천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알리기

본 코너에서는 정부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맞춰 인천시에 공공의대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추진단을 소개합니다.

② 인천대학교는 공공의대 설립추진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의대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의대 유치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① 2020년 1월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지금까지 국내 사회·경제·문화 등 전반에 재난 수준의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지금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신종감염병은 해외에서 유입되어 발생한다는 점을 경험하게 되면서 국내 관문도시인 인천시에 (신종)감염병 유입을 대비한 감염병 대응 의료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이 증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종)감염병 대응 의료시스템 구축에 필수 요소인 국내 의사 인력 수가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1천명당 의사수가 2.5명(2020년 기준)으로 7대 특·광역시 중에서 6번째로 의사 수가 적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응급,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신종) 감염병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병원(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경우 국립대병원이 없어 관내 사립대병원이 해당 필수의료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립인천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인천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과 연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하여 인천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립대학교의 책무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③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유치를 위해 만들어진 설립추진단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나요?

④ 설립추진단은 대외협력부총장을 단장으로 하여 교수, 학생, 직원 등 학내 구성원과 동문회,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총 2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립추진단에서 모아진 의견을 실행하기 위해 대학 중간관리자(팀장·과장급) 19명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유치를 위해 설립추진단은 3~5년에 걸친 4단계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1단계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2단계는 국회에 발의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에 힘쓸 계획입니다. 해당 법률 개정 이후 3단계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공공의대 유치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4단계로 대학 내 공공의대 설립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각 단계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설립추진 단을 중심으로 적극 노력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② **설립추진단은 공공의대 유치를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을 작년 10월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아직 서명운동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① 공공의대 서명운동은 지난해 10월부터 온라인 (QR코드, 홈페이지, 전화서명)과 오프라인(서명지 서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당초 목표에는 못 미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과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1월 시청, 부평역, 인천터미널역, 연수구 스퀘어원 등에서 서명운동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2월에는 연수구청과 공공의대 설립 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하였고, 교내에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내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과 연수구청의 서명운동 적극 참여로 4~5월 말 경에는 상당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외에도 지자체 결의운동, 인천시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등 지역사회에서 지지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공의대 유치를 위해 설립추진단이 계획하고 있는 지역사회 활동이 있다면?**

④ 지금까지 인천시의회, 연수구의회, 미추홀구의회, 남동구의회, 서구의회, 계양구의회, 부평구의회 등 기초지자체 입법기관에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지난해 11월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지역별 공공의대 설립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경 인천지

역 30개 시민단체와 인천시, 인천시의회가 참여하는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에서 2022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공공의대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저희 설립추진단은 앞서 언급한 로드맵에 따라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에는 1단계와 2단계에 집중할 예정인데 먼저, 4~5월경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인천시에 공공의대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자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9일자로 국회에 발의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④ **인천대학교는 그 동안 몇차례 의대 유치를 위해 노력했으나 안타깝게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만약 이번에 공공의대를 유치하게 된다면 인천 지역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① 우선, 우리 대학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국립대학교 평가에서 의대 운영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공의대가 유치된다면 국립대학으로서 인천대학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천시 차원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300만 대도시인 인천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강화와 인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이는 결국 국가 보건 안전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⑤ **마지막으로 구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① 300만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인천시는 현재 모든 분야에서 자체충족적인 도시기능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에 관내 국립대학교인 인천대학이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인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진성과



2022년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공모 지원



인천시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 소재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대상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공모에 참여함에 따라 감염병관리지원단과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 기간 : 2021년 12월 ~ 2022년 1월
- 장소 : 인천시청

제2인천의료원 제안서 평가 지원



인천시 제2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을 위한 공모 참여 업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 일시 : 2022년 2월 8일(화) 오후 4시
- 장소 : 인천시청 2층 공감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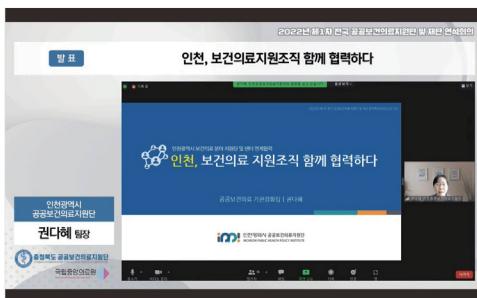
2022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력 강화 워크숍 개최



2022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 인지와 기획력 평가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춘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통계 활용,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 기획서 작성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천시 소재 7개 공공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 일시 : 2022년 2월 10일(목) ~ 11일(금)
10:00 ~ 17:00
- 장소: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3층 로터스5

2022년 제1차 전국 공공보건 의료 지원단 및 재단 연석회의 참석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관으로 운영된 2022년 제1차 연석회의에서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전국 지원단 및 재단의 성과공유회로 이루어진 둘째 날에는 권다해 팀장이 인천 보건의료 분야 지원조직과의 연계협력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 일시 : 2022년 2월 17일(목) ~ 18일(금)
- 장소 :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3층 직지홀
(온라인 병행)

젠더와 건강 특별강의 운영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내부 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도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별강의를 운영하였습니다. 김명희 센터장(NMC 정책통계지원센터)이 젠더와 건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타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원도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 일시 : 2022년 3월 17일(목) 15:00~17:00
- 장소 :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AREX8
(온라인 병행)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조사방법론 세미나 개최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의 지역사회 보건의료 진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방법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양적·질적 조사연구방법의 이해, 조사결과의 효과적인 기술 방법 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 일시 : 2022년 3월 15일(화), 22일(화), 29일(화) 14:00~17:00

• 방법 : 온라인(zoom)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성과물 발간

「인천광역시 보건의료 분야 지원조직 운영 현황 및 협력적 발전방안 모색」과 「내 손안에 이슈-인천광역시 요양 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현황 및 정책방향」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보건의료 분야 지원단 및 센터(15개 기관)의 2021년 공동사업과 참여기관별 주요 성과를 담은 연례보고서를 공동으로 제작·발간하였습니다. 각 성과물의 전문은 지원단 홈페이지(<http://www.ippi.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향후계획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및 의료계획 수립 지원

인천시와 관내 7개 공공의료기관이 인천시민을 위해 실효성 있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2022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및 의료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5월까지 2021년 추진실적 및 시행결과 작성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정 2022년 1월~5월

대상 인천시 및 인천시 소재 공공의료기관 7개소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지원

인천시 소재 공립요양병원의 현황과 성과를 파악하고 평가결과에 근거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2022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정 2022년 4월~5월

대상 인천 제1·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협력 지원

인천시 보건의료 분야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노조, 연구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민선8기 인천시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지방선거 공약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정 2022년 4월~6월

장소 미정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개최 지원

올해 2월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해당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2022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1차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개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정 2022년 5월

장소 인천시청

인천광역시 보건의료 지원단 및 센터 실무자 정례회의 개최

인천시 보건의료 분야 지원단 및 센터(15개 기관)의 실무자가 모여 연계협력의 비전과 성과를 공유하고, 기관장 정례회의에 앞서 공동사업 안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일정 2022년 6월

장소 미정

